

임성재 “PGA 새해 첫 경기 설렌다... 좋은 성적 기대”

새해에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출전
42명 정상급 선수들 모두 출전 왕중왕전 대회

임성재(23)가 2021년 각오를 다졌다. 꾸준한 성적과 우승을 목표로 했다. 임성재는 8일(한국시간)부터 미국 하와이주 카팔루아 리조트 플랜테이션 코스(파73·7596야드)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새해 첫 대회인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총상금 670만 달러)에 출전한다.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는 42명의 정상급 선수들이 모두 출전하는 왕중왕전 성격의 대회이다. 대회는 72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열리며, 컷 탈락 없이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지난 시즌 대회 우승자들만 출전할 수 있는 무대이다. 임

성재 역시 지난해 혼다 클래식 우승자 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한다. 대회를 앞둔 임성재는 PGA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임성재는 정상급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를 기대했다.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 처음 출전한다. 대회에 출전할 수 있어서 설렌다. 우승자들만 나오는 대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다음은 임성재의 일문일답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는 작년 대회 우승자들만 출전할 수

있는 특별한 대회인데 출전하는 소감이 어떤가.

“올해 처음으로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대회에 출전한다. 대회에 출전할 수 있어서 설렌다. 우승자들만 나오는 대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 좋겠다.”

-쉬는 기간을 어떻게 보냈나. 애틀랜타에 집을 사서 이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미국 생활은 어떤가.

“애틀랜타에 집을 사게 되면서 올해는 미국에서 겨울 훈련을 했다. 내가 부족한 점을 연습하면서 오프 시즌을 잘 준비했다.”

-크리스마스 새해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보냈나.

“크리스마스에는 아무일 없이 집에서 쉬면서 잘 보냈다. 지금 상황에서 많은 이동은 좋지 않기 때문에 쉬는 날에는 집에서 있으며 잘 보냈다.”

-1년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

“2021년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해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 우승도 했으면 좋겠다.”

-대회가 열리는 플랜테이션 코스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나.

“어제, 오늘 처음으로 쳐봤다. 이곳 플랜테이션 코스가 바람이 많이 불면 생각보다 어려워진다. 코스는 많이 길진 않고 좀 짧은 편이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충분히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 같다. 바람이 많이 불면



전략을 잘 세워서 쳐야 할 것 같다.”

-2020년 시즌 성적이 좋았다. 작년 시즌의 결과들이 골퍼로서의 의미 어떤 점이 더해졌나.

“작년에 첫 우승도 했고, 마스터스에서 2등을 했다. 굉장히 뜻 깊은 한 해였다. 기억에 많이 남는 한 해였다.”
뉴스

‘韓수영 희망’ 황선우, 김연아·김서영과 한술밥

올댓스포츠와 매니지먼트 계약



한국 수영 경영대표팀의 황선우(사진 오른쪽)와 김서영. (사진 = 대한체육회 제공)

한국 수영의 새 희망 황선우(18·서울체고)가 ‘피겨여왕’ 김연아, ‘인어공주’ 김서영과 한술밥을 먹는다. 매니지먼트사 올댓스포츠는 6일 “고교 2학년의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황선우는 지난해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자유형 100m 한국 신기록(48초25)을 세웠고, 자유형 200m에

서는 세계주니어 신기록(1분45초92)을 수립하며 한국 수영의 새 희망으로 떠올랐다. 올림픽 기준기록을 충족하면서 올해 도쿄올림픽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황선우는 뛰어난 체격조건과 함께 타고난 물감을 기반으로 놀라운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자유형 200m에서 6초, 자유형 100m에서 3초가량 기록을

단축했다. 성장기인 고등학생임을 감안하면 향후 더 큰 기대를 모은다.

황선우는 “앞으로 더 발전하고 나아가는데 올댓스포츠와 함께 준비해 갈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도쿄올림픽을 비롯해 다양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동회 올댓스포츠 대표는 “황선우는 한국 수영이 올림픽 기대종목, 인기종목이 다시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기고 있는 기대주”라며 “이제 고교 2학년인 황선우가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사로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올댓스포츠는 피겨스케이팅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연아와 여자 수영의 간판이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김서영의 소속사다.

이밖에 윤성빈(스켈레톤), 최민정(쇼트트랙), 원윤종-서영우(봅슬레이), 임성재, 배상문, 양희영(이상 골프), 여서정(체조) 등이 속해 있다.

김미희기자

프로축구 윤석영, 다시 강원FC 유니폼 입는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 풀백 윤석영이 다시 강원FC 유니폼을 입는다. 강원은 6일 “윤석영을 완전 이적으로 영입하면서 다시 한 번 호흡을 맞게 됐다”고 전했다. 윤석영은 2019년 임대 신분으로 강원 유니폼을 입고

28경기에 출전해 수비의 한 축을 담당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경험에 있는 윤석영은 일본 리그 가시와 레이슬과 계약이 끝나면서 국내 이적을 타진했고, 최종적으로 강원과 손을

잡았다. 2019년 김병수 감독의 제안으로 풀백이 아닌 센터백으로 뛰던 윤석영은 수비 멀티 자원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윤석영은 “강원에서 행복하게 축구했는데 돌아오게 돼 기쁘다”며 “최고 팀이 됐다. 동갑 선수들과 하나로 뭉쳐 팀을 이끌어 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즌은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시즌이 되길 바란다. 시즌이 끝날 때 선수들 팬이든 이번 시즌은 하나가 돼 경기를 했다는 느낌을 받고 싶다”고 했다.

이어 “강원에서 골을 기록하는 게 목표다. 도움을 기록했는데 득점을 하지 못했다. 올해는 득점에도 욕심을 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민정기자

손흥민, 정초부터 기록 행진...토티넘 100골 이어 유럽 150골



손흥민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티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1시즌 카라바오컵(리그컵) 브렌트포드와의 준결승전에 선발 출전해 드리블하고 있다. 손흥민은 후반 25분 팀의 두 번째 골을 넣어 유럽 무대 개인 통산 150호 골을 기록하며 토티넘의 2-0 승리에 이바지했다.

손흥민(토티넘)이 신축년 정초부터 연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티넘에서 통산 100호골을 터뜨린데 이어 유럽 무대 통산 150호골 고지에 올랐다. 손흥민은 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티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챔피언스리그(2부리그) 소속 브렌트포드와의 2020-2021시즌 카라바오컵(리그컵) 준결승전에서 1-0으로 앞선

후반 25분 추가골을 터뜨렸다. 2010~2011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기록한 데뷔골을 시작으로 유럽 무대 통산 150번째 골이다. 손흥민은 자신의 첫 번째 프로팀이었던 함부르크에서 20골,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29골 그리고 토티넘에서 101골을 넣었다. 구분하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41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65골, 유럽축구연맹(UEFA) 클럽대항전에서 25골, 컵대회에서 19골을 기록했다. 총 419경기 만에 150골 고지를 밟은 것으로 경기당 0.36골의 수치를 보였다.

손흥민은 지난 2019년 11월 한국 축구 전설인 차범근 전 감독의 한국인 유럽 무대 공식전 최다골(121골)을 경신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차 전 감독의 한국인 빅리그 최다골(98골)도 넘어섰다. 손흥민의 발걸음이 곧 역사다.

손흥민은 이날 2경기 연속 골로 시즌 16골(8도움)째를 신고했다. 리그에서 12골 5도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에서 3골 3도움, 리그컵에서 1골을 기록 중이다.

앞서 지난 2일 리그 유나이티드와의 리그 경기에선 토티넘 통산 100호골을 달성했다.

이날 골까지 포함해 토티넘 소속으로 EPL 65골, 잉글랜드축구협회(FA) 컵 12골, 리그컵 4골, UEFA 챔피언스리그 14골, 유로파리그(예선포함) 6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토티넘 역사상 100골을 달성한 18번째 선수다.

뉴스

일본, 신규 외국인 입국 금지...로하스·알칸타라 어찌나

한신 “로하스·알칸타라, 2월 캠프 합류 어려울 수도”

일본프로야구 데뷔를 앞둔 멜 로하스 주니어와 라울 알칸타라의 새 시즌 준비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다.

일본 닛칸스포츠는 6일 “한신 타이거스의 새 외국인 로하스와 알칸타라의 입국 시기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다니 오사무 한신 본부장은 이들의 2월 스프링캠프 합류에 대해 “어려울 수도 있다. 비자 수속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일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1월 말까지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다니 본부장은 “지난해부터 일본에서 뛰던 외국인 선수들은 취업 비자가 남아있어서 이를 활용하면 일본 입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로하스와 알칸타라는 언제 일본으로 건너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2020년 KBO리그에서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에 오른 로하스와 20승을 거둔 알칸타라는 일본 내에서도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그



러나 스프링캠프 합류 일정부터 불투명해지면서 시즌 준비에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선욱기자

전남드래곤즈 CB 장순혁 영입하며 ‘잔물수비’ 보강



전남드래곤즈가 충남아산FC의 중앙 수비수 장순혁을 영입했다.

U-23 대표팀 출신인 그는 2016년 울산에 입단 후 2017년 강릉시청으로 입대를 가서 활약했다.

2018시즌 부천FC로 이적하며 1년 만에 프로무대로 돌아와 17경기 출장하였다. 2019시즌 아산무궁화(현 충남아산FC)로 직을 옮겨 2시즌 동안 43경기 1득점을 기록했으며, 2020시즌 충남아산의 부주장으로 선임되어 선후배 간 가교 역할을 했다.

키 188cm의 장신 센터백으로 제공권이 강하고 상대와의 몸싸움에 능한 장순혁은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패스와 드리블 등 발기술도 좋아 후방에

서 빌드업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선수다.

준수한 스피드, 수비 리딩 능력까지 두루 갖춘 장순혁을 영입한 전남은 그가 ‘잔물수비’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에 입단한 장순혁은 “전남드래곤즈에 입단하게 되어 기쁘다. 팀의 가장 큰 장점이 수비라고 생각했다. 특히 잔물수비가 인상 깊었다. 전경준 감독님 밑에서 잘 배워서 올해도 잔물수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